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신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중에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5.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3)

2010년 4월 24일 5회분

[시9: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엷혔도다.

序; 우리가 지난 두 시간을 통하여 기념칭호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두 가지 기념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첫째 존재양식의 기념이요, 둘째 창조주로서의 기념이었다. 이 기념 칭호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6500번이나 쓰였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이것은 이 이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권면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알 때 가능하다. 성경에서 이름과 그 이름을 가지신 실체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본대로 이사야 30:27에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시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런 사실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칭호인 여호와라는 이름의 기념들을 연구하고 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념을 살펴볼 시간이다.

1.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시50:6]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전11: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12: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롬14: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후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100번 이상 나타난다.

우리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한다. 우리들은 심판과 형벌이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성경의 어떤 기록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만하게 기록되었다.

[요5:28,29]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런 뜻으로 읽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으니 그것은 당연히 형벌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심판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에 이 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시9: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엷혔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여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개역 한글판에는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고 번역되었는데, 공동번역에는 “야훼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걸려들리라.”고 번역했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와는 의로운 심판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악인들은 그들이 행할 일로 함정에 빠진다.”

개역보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사상을 계시하였다.

[사26:8,9]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말씀에는 주의 기념 이름을 사모하는 이유가 심판하시는 길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심판으로 의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어떻게 심판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는가?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존재양식의 기념이고, 창조주로서의 기념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에 스스로 있는 것은 결코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하였다.

[욥12:7~10]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8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9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10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다. “7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것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8 땅에게 말해 보아라. 그것이 너를 가르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일러 줄 말이 있을 것이다. 9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을 모르겠느냐? 10 만물의 생명과 전 인류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 이성인 있는 피조물, 천사나 사람은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롬1:19,20]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자기를 알리셨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성인 있는 피조물 중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여호와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없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와의 창조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기도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않은가? 이렇게 주장하는 자에게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자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나의 창조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느냐? 그럼 그렇게 존재하여라. 그렇게 존재한다면 내가 창조해 준 존재는 나에게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것은 나에게 반납하고도 네가 존재하면 네가 나 창조주인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한다는 네 주장이 옳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해 준 존재는 반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 사상이다.

그런 주장을 한 자가 그 존재를 반납하면 존재하겠는가? 물론 존재를 상실한다. 그래서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해 준 자기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분명히 인식하겠는가. 그가 존재를 반납하든지, 자기의 주장을 취소하든지 어느 경우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반납하게 될 때에는 깨닫기는 하지만 이미 그의 존재를 다시 확보하기에 너무 늦은 것뿐이다.

3. 심판의 결과

이런 심판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9편이다. 이미 본문으로 봉독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엮혔도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이 심판에 대한 말씀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다.

[시9:7,8,16]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8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엮혔도다.

악인이 그 손을 행한 일에 스스로 엮혔다는 말씀은 바로 자기가 여호와와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다. 17절은 더 분명하게 말한다.

[시9:17] 악인이 음부로 돌아감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상관없이도 자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자들은 음부로 돌아가게 된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상실, 존재의 영원한 상실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다 영원히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이며 그 결과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기념이다. 곧 심판주로서의 기념이다.

4. 창조를 부인하는 방법과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방법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곧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조물 중에 이런 주장을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루시퍼이다.

[사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는 “헬렐”인데,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치페르”로 번역되었다. 그 철자를 영어로 발음하면 루시퍼가 된다. 킹제임스 역에 라틴어 철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다. 고유명사로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존재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뭇 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동등하리라고 주장하였다. 비기리라는 말이 바로 동등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루시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해 준 그 존재를 반납하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 존재를 반납하지 않고 창조주와 동등하리라고 생각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계12:7절부터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러나 그는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가 땅으로 쫓겨 와서 에덴동산에서 첫 여자에게 접근하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교묘하게 유혹하였다.

[창3:4,5]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을 매개체로 하여 여자에게 접근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와 동등하다는 주장이다. 곧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루시퍼 자신이 주장한 것과 똑 같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다. 아담도 먹었다. 그들도 루시퍼와 같은 생각을 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제 그들도 존재를 반납해야 한다.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루시퍼가 저지른 이런 일을 아담에게 경고하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일렀다. 죽는 것은 존재를 반납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함께 먹었다. 이제 그들은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죽음이다.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 그 존재를 반납해야 한다. 반납하고도 존재해야 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반납하는 것은 영원한 상실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분이 창조주시며 자존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이름 여호와에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다.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거나 생활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나의 존재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곧 심판에 대하여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과 상관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으로 온 우주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 존

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이요 그 심판의 영원한 결과이다. 루시퍼도 없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악인들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히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이런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하셔서 사람을 그렇게 유혹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루시퍼 곧 마귀, 사단은 없어질 것이다.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시퍼와 사상을 같이한 모든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다.

[시37: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고.

악인은 그 곳을 자세히 살펴도 없다. 존재를 반납하기 때문이다.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심판이 하나님의 자의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시는 과정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존재를 반납 받는 것이다. 그렇게 반납 받으면 그들은 영원히 존재를 상실한다. 우주 어디에서도 그들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

그들이 반납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롭다고 시인한다. 독생자가 그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사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으나 그들이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존재를 반납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들은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경배한 후에 그들의 존재를 반납한다. 이것이 심판의 결과이다.

[빌2:9~11]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무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렇게 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존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분에게 나의 존재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심판주로서의 기념의 내용이다.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함으로 진정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자.

기도: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에 포함된 기념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름에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새기게 해 주십시오. 만일 이것을 부인할 때 나의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

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듣고 연락하기 원하시는 분은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10(안) 9:44pm.